조계종과 협의없는 공원법 개정 '논란'

입법예고 8월 12일까지, 조계종 입장정리 나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했으나 국·도립공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사찰토지를 소유한 조계종과 협의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조계종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8월 12일 전까지 종단입장을 전달해 반영되도록 추진 중이다.

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덕문)'는 7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2차 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의 중점사항에 대한 종단 입장을 정리해 환경부에 제안키로 했다.

입법예고된 전부개정안은 국립·도립·군립공원 구분 없이 규정된 편제를 공원관리 주체별로 나누는 등 조문체계를 재편, 86개 조문을 109개로 세분화했다. 또한 '자연공원법 목적'에 현재·미래세대가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립

사찰토지 비중 상당함에도
정부로부터 연락도 못받아
교구본사들도 날세워 비판
"공원 개념부터 재정립을"

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구분하고,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별도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 및 경관 보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이 같은 자연공원법 입법예고에 불쾌함을 표현했다. 국·도립공원에서 사찰토지의 비중이 상당한데다 대가없이 공원으로 편입된 만큼 환경부와의 사전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 공원구역의 육상면적 약 3,972㎢ 중 사찰지는 약 279㎢인 7% 수준으로 8440만평에 달한다. 사찰지 비중이 큰 만큼 국립공원 통계서도 국유지·공유지·사유지·사찰지로 나눠 구분하고 있다.


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소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종단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조계종은 '공원'이라는 용어 개념에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국립공원'이라는 표현이 자칫 모든 토지가 100% 국공유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전통사찰과 일반사유지 소유자가 공원지역에 대해 갖는 다양한 권리·재정지원책의 명문화를 주장했다. 이는 사유지 권리가 보장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자연공원법이 '자연생태' 중심으로 설계돼 전통사찰보존지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문화경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전통사찰보존지 사용과 관련한 일체 사항은 당해사찰 주지 및 그 소속종단 대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안키로 했다.

개정안에 공원구역을 점용·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요금 납부의무가 명시된 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기관이 사유지를 점용·사용할 시에도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덕문 스님은 "조계종 사찰토지의 3분의 2가 국립공원에 편입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개정안 입법예고부터 해놓고 종단에 검토해달라는 건 무례"라고 꼬집은 뒤 "이달 안에 종단 입장을 정리해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논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7월 19일 제57차 회의서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고, 향후 입장문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2018 상반기 세종도서 불교 관련 6종 선정

정운 스님의 〈그대와 나,…〉 등

2018년 상반기 세종도서에 불교관련 서적 6종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7월 8일 심사를 통해 선별한 2018년 상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작 220종을 발표했다.

종교부문에 선정된 불교 관련 서적은 △그대와 나, 참 좋은 인연입니다(정운 스님, 담앤북스) △다비: 위빠사나 수행기(정해심, 에디터) △담마빠다: 고려가사·한문 빠알리어로 읽는 게송과 배경담(현진 스님, 조계종출판사) △마음 다루기 수업: 혜안 스님의 삶을 바꾸는 명상이야기(혜안 스님, 싱긋) △불교는 왜 그래?: 불교가 궁금한 이들에게 전하는 속 시원한 해답 33(장웅연 글, 최밈밈 그림, 담앤북스)이다.

또 동국대대학원에서 '불교의 업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영석 가톨릭 신부의 △예수처럼 부처처럼: 성경과 무문관의 우연한 만남(이영석, 성바오로)도 선정됐다.

신성민 기자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불교복지도 변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미래복지포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 정책을 반영한 불교복지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범적인 사회서비스원 운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은 '사회서비스원과 불교사회복지의 방향'을 주제로 '제74회 미래복지포럼'을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개최했다.

충분한 논의·보완 거친 뒤
불교계 성과 이어지게 해야

사회서비스원 정책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질적 관리나 인력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대두됐다. 사회서비스원의 범위는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향상 등을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됐다.

상임이사 묘장 스님은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따라 불교사회복지도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포럼의 발제는 김형용 교수(동국대 사회학과)가 맡았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포럼 등 다양한 정책에 참여한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진행 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을 정리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호영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공상길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등은 종교계 사회복지 및 현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이들은 "공공성과 전문성, 획일성과 자율성 등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거쳐 민간 영역부터 시작된 불교계 사회복지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출가, 가장 빛나는 선택입니다

조계종, 하반기 출가 안내 시작

매 6·12월 집중안내기간 맞아

출가 포스터·동영상 제작 배포

조계종이 올해 하반기 출가자 모집에 들어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7월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출가'를 캐치프레이즈로 2018년도 하반기 출가 안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가 절벽 시대' 대응책으로 조계종 교육원은 매년 6월, 12월을 출가 집중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출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는 하반기 집중등록기간으로 이 기간에 등록하면 행자생활을 거쳐 내년 3월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게 된다. 출가 대상은 만13~50세(1969년 12월 31일까지) 누구나 가능하다.

출가 홍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은 포스터 2종과 동영상을 제작해 전국 교구본사와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특히 동영상 제작 홍보는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 진흥을 위해 새롭게 제작한 출가포스터.

BTN불교TV를 통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1달간 오전 10시 30분에 방영된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출가 절차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조계종 교육원(02-2011-1801)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출가상담은 출가상담전화(1666-7987)로 전화해 출가상담사 스님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다. 조계종 출가사이트(monk.buddhism.or.kr)에서도 출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계종 교육원은 "교구본사를 비롯해 동국대, 중앙승가대에 포스터를 배포했고, 동영상도 각 본사와 기관 홈페이지에서 게재토록 요청했다"면서 "하반기에는 각 본사 출가지도법사 스님들을 교육해 일선 현장에서 출가를 독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출가 스님에게는 필요한 주거·교육·의료 등 일체 혜택과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입원진료비·요양비 등이 지원된다.

소년출가자, 청년출가자의 경우에는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불교대학 입학 시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대학원 진학 시 장학지원, 군승 지원 시 특별 선발한다. 특히 소년출가자는 6개월간의 행자교육과정이 면제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에서 배우는 청소년 '생명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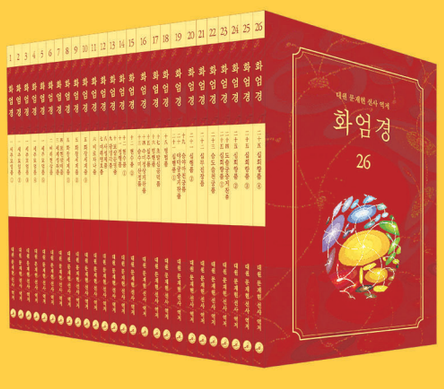
생명나눔,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아동센터 2곳과 용인 법륜사서 '찾아가는 지역아동센터 교육 및 나를 위한 여행 법륜사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행사는 구립수락지역아동센터와 구립푸르름지역아동센터서 생명존중에 대한 인성교육을 들은 뒤, 법륜사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체험으로 이어지며 참가비는 무료다.

교육 및 템플스테이에는 진행요원, 생명을 지키는 의대생 자살예방동아리 '따숨', 지역아동센터 담당교사와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먼저 각 지역아동센터 별 인성교육 4회를 들은 뒤, 법륜사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면 된다.

교육 및 템플스테이는 각 지역아동센터서 4일, 법륜사서 1박2일 동안 이어진다. 인성교육 일정은 구립수락지역아동센터 7월 27일~8월 1일, 구립푸르름지역아동센터 8월 6~9일이다. 법륜사 템플스테이 일정은 각각 8월 2~3일, 8월 13~14일이다. (02)734-8050

김지원 수습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102권째 서적 출간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으신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
화엄경

81권 중 26권 출간
출간 불사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무료 전자책
〈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5252-3603 〉

SUMMER ZEN RETREAT
여름 禪 수련회
장소 포천 성불사 국제정맥선원
일정 2018.08.11(토)-2018.08.15(수) 4박5일
교재 바로보인 도가귀감
정맥선원 정기수련회
심지법문/참선/명상요가/발우공양

준비물 : 세면도구, 작은 담요(방석 1-2장 배분), 겉옷준비 (밤에 추움), 긴바지(반바지 삼가함)
참가비 : 4박5일, 3박4일 (1인 100,000원 / 2인 이상 가족시 1인당 80,000원, 어린이 50,000원)
2박3일, 1박2일 (1인 60,000원 / 2인 이상 가족시 1인당 50,000원, 어린이 3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55-0021-9977-03 성불사 / 문의 : 법심스님 010-8670-1445